SERI 경제 포커스

2009. 12. 15. (제272호)

청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목차

FOCUS 1

1. 청년 미취업의 현황과 원인

2. 사회적 기업과 청년 고용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1

경제일지 12

경제통계 15

작 성: 박준 수석연구원
(jpark@seri.org)
02-3780-8526

삼성경제연구소

1. 청년 미취업의 현황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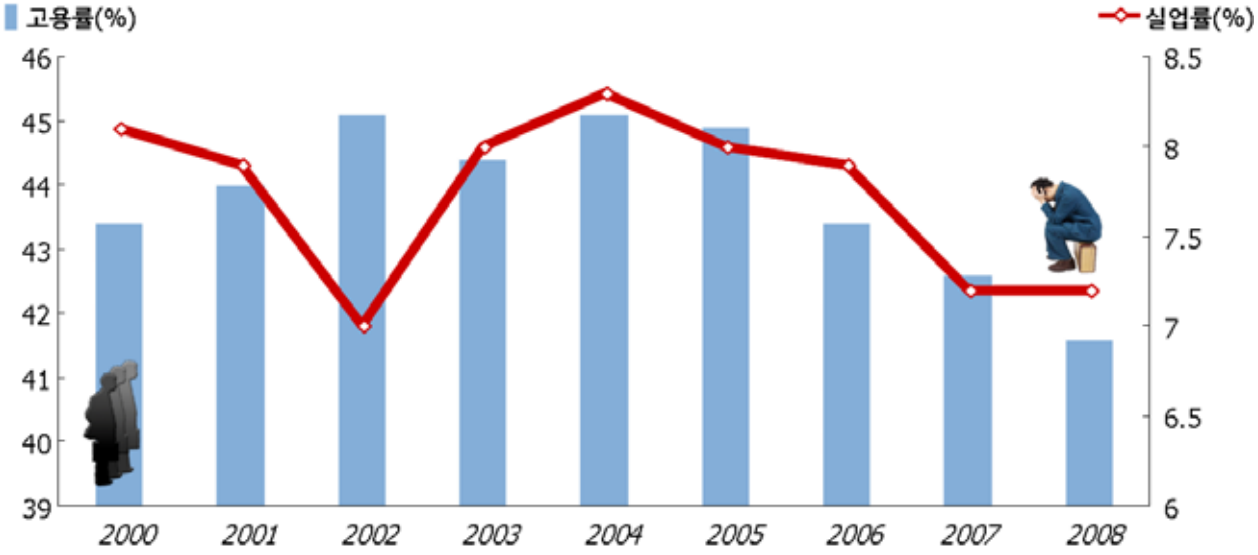
청년층의 유휴인력 문제가 심각

□ 실업률[1]보다 고용률[2]이 한국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더 정확하게 전달

- 2004~2008년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에서 7.2%로 개선된 반면, 고용률은 45.1%에서 41.6%로 하락
  - 2008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12.4%)보다 양호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43.7%)을 하회[3]

-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자의 경우 非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
  - 청년층의 주된 구직 포기 사유로는 ①임금 등 원하는 근로조건과 불일치, ②구직 실패의 반복, ③전공이나 경력과 불일치 順

한국 청년층의 고용 지표



자료: 통계청, KOSIS.

[1]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로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

[2]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

[3] OECD가 정의하는 '청년층'의 기준은 15~24세이나, 한국 통계청은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15~29세로 정의

□ 청년 미취업자의 문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화

- 2005년 현재 15~29세 청년층 가운데 無業者[4]의 수는 총 166.1만 명으로 이 중 대졸 이상이 42.3%(70.2만 명)를 차지[5]

- 한국의 대졸 청년층 인구 중 無業者의 비율은 약 25%로 OECD 최고 수준[6]
  · 학력별 無業者 비율에서 대졸이 고졸(18%)을 상회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청년 미취업을 악화

□ 청년실업의 주원인은 경제성장의 둔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청년 無業者 흡수가 가능한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이에 더하여 청년층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기피함으로써 취업난이 가중

-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은 구직 과정에서 청년층의 눈높이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대학 진학률은 2000~2008년 사이에 68.0%에서 83.8%로 상승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일자리는 고학력자가 기피하는 생산직이 대부분
  · 2008년 현재 5~299인 중소제조업에서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이 79.1%를 차지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2008년	전체	사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및 準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판매 관리직
현인원(명)	2,162,019	477,817	60,494	154,661	576,828	815,035	17,251	59,933
부족인원(명)	59,603	3,473	2,740	4,610	22,084	25,056	303	1,337
부족률(%)	2.7	0.7	4.3	2.9	3.7	3.0	1.7	2.2

주: 부족률=(부족인원)×100/(현인원+부족인원)
자료: 통계청, KOSIS.

[4] 학생을 제외한 미취업자
[5] OECD(2007). *Jobs for Youth: Korea*. OECD: Paris. p. 39.
[6] OECD(2007). *Jobs for Youth: Korea*. OECD: Paris. p. 39.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

□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의 빈곤화, 대학교육투자 손실 등을 야기

- 경력의 단절, 인적자본의 유실 등으로 개인의 생애소득이 감소
  - 1990년대 불황기에 취업난을 겪은 일본의 청년층은 프리타[7], 일용파견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

- 고비용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 유휴인력으로 死藏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낭비
  - 2006년에 한국은 GDP의 2.5%를 대학교육에 지출(OECD 2위)[8]

□ 청년 취업 제고를 위해 청년층의 직업관을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임금수준 등 객관적 보상뿐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 역시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9]

- 직업을 통해 사회적 목적, 자아실현 등 非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대기업과 중소제조업 이외에 제3의 대안이 가능

2. 사회적 기업과 청년 고용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청년 고용에 기여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시민단체와 기업의 중간형태로, '운동(Movement)' 대신 '사업(Business)'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

- 사회적 기업은 이윤 대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유사
  -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

---

[7]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

[8] 공공지출과 민간지출의 합(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OECD: Paris. p. 218.)

[9] Judge, T. & Bretz, Jr., R. (1992). Effects of Work Values on Job Choice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3), 261-271.

-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활동을 하되,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주마벤처스(Juma Ventures)

▷ 주마벤처스는 원래 빈민지역 청소년 상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단체

▷ 1994년부터 벤앤드제리社(Ben & Jerry's)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시작
- 영업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직업훈련, 장학금 등을 제공

□ 사회적 기업은 관리직, 사무직 등 고학력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

-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운영, 회계, 마케팅 등 경영인력이 필요
  · 미국의 시민사회단체(Civic & Social Organization)[10]들은 관리직, 전산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4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11]
  · 주마벤처스의 경우 CEO를 비롯한 25명의 경영인력을 고용[12]

-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직종별로 일반 기업의 60~8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부양부담이 적은 청년층에게 적합
  · 미국에서 시민사회단체 경영직(Business & Financial Operation)의 평균 연봉은 4만 7,980달러로 동일 직종 全 산업 평균의 74.1% 수준[13]

사회적 기업은 각 국에서 새로운 복지 모델로 부상 중

□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자선단체의 활동이 활발했던 英美圈에서 정부를 보완하는 중요한 민간 사회복지제도로 정착[14]

[10] 종교, 이익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을 제외한 비영리단체로서 미국 산업분류코드 중 사회적 기업에 가장 부합
[11] 2008년 5월 기준(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2] Juma ventures <http://www.jumaventures.org/pages/who_team.html>
[13] 2008년 5월 기준(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던 비영리단체들이 자구책으로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

- 영국에서도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면서 실업자와 노숙자의 자활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 2005년 현재 영국 내에 약 5만 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연간 84억 파운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6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15]

□ 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정부 지원의 결과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英美圈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수준이 매우 낮은 편

-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을 전개
  · 창출된 일자리가 공공근로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해 실효성 문제에 직면

- 정부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도입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을 장려
  · 同法에 의거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16]에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

- 2008년 6월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급 근로자 수는 5,056명으로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36.3%를 차지[17]

사회적 기업은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의식에 적합

□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는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음

---

[14]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협동조합'은 수익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 경제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구별

[15] Purser, K. (2009. 3.). UK Social Enterprise Policy. UK Cabinet Office of the Third Sector. <http://ec.europa.eu/enterprise/newsroom/cf/document.cfm?action=display&doc_id=3416&usersservice_id=1&request.id=0>

[16] 2009년 11월 현재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총 266개

[17] 곽선화(2009).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 기업 연구포럼 제2차 정책연구 세미나』(pp. 5-38), 6월 5일. 서울: 서울지방노동청.

- 기업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은 외형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으로 대별[18]
  - 외형적 보상은 어떤 직무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금전적 가치, 안정성, 명예 등을 의미하는 반면, 내재적 보상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수준이 낮아 근로자에 대한 외형적 보상이 미흡한 편
  - 2005년 영국 사회적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만 3,520 달러[19]로, 당시 1인당 GDP(37,900 달러)[20]의 62.1% 수준에 불과

- 반면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에게 성취감, 자아실현감, 사회문제 해결의 기쁨과 보람 등 내재적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 한국의 20代 고학력 청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내재적 보상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2009년 현재 20代 청년층 가운데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비율이 38.2%로 다른 연령집단을 압도

연령별 직업선택요인 조사 결과

(단위: %)

기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외형적 보상	명예, 명성	3.8	2.8	2.8	3.2	3.6
	안정성	27.9	31.8	32.8	33.0	30.9
	수입	29.0	36.2	39.8	41.4	39.4
	계	**60.7**	**70.8**	**75.4**	**77.6**	**73.9**
내재적 보상	적성, 흥미	17.8	11.7	8.3	6.1	4.7
	보람, 자아성취	9.3	7.9	7.3	6.9	4.5
	발전성, 장래성	11.1	8.7	7.7	6.0	4.9
	계	**38.2**	**28.3**	**23.3**	**19.0**	**14.1**

주: 2009년 기준. 응답항목 중 '기타'와 '모르겠음'은 생략
자료: 통계청, KOSIS.

[18] Milkovich, G. & Newman, J. (1996). *Compensation Management*. McGraw Hill.
[19] 2005년 사회적 기업의 총 부가가치인 84억 파운드를 총 고용인원 65만 명으로 나눈 후 2005년 평균 대미 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20] 명목치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 20代 청년층 중에서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이하에 비해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높게 형성

20대 학력별 직업선택요인 조사 결과

(단위: %)

기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외형적 보상	명예, 명성	1.7	3.6
	안정성	28.9	29.4
	수입	33.1	22.8
	계	**63.7**	**55.8**
내재적 보상	적성, 흥미	15.8	20.7
	보람, 자아성취	5.5	9.9
	발전성, 장래성	13.4	12.9
	계	**34.7**	**43.5**

주: 2009년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2006년 통계를 사용. 응답항목 중 '기타'와 '모르겠음'은 생략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내재적 보상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도 20代 청년 구직자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을 시사

국내 사회적 기업이 청년층에게 주는 내재적 보상

· 미국은 2009년 4월 독립 연방청인 '국가·지역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혁신기금(Social Innovation Fund)'을 설치

민간의 사회적 기업 배양력을 강화

□ 사회적 기업의 모태가 되는 인큐베이팅 기관이 튼튼해야 건강한 사회적 기업 창출이 가능

-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은 사업 기획에서부터 창업 후 자립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에게 자금, 노하우 등을 밀착 지원

-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게 창업자금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성 있는 비영리재단의 층이 두터운 것이 강점
  · 미국에서는 2007년 현재 약 7만 5,000개에 이르는 재단법인이 연간 456억 달러를 공익활동을 위해 기부[22)]
  · 하버드大, 스탠포드大 등 유명 대학 MBA 과정에 사회적 기업 전공이 설치되어 비영리재단 관리자들을 배출

□ 한국도 사회적 기업의 배양소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영리재단의 설립을 장려할 필요

- 공익재단 설립 시 출연자의 가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설립 후 출연재산의 사적 이용은 엄격히 규제
  · 미국의 경우 2007년 현재 가족재단의 비율은 기부행위를 하는 총 비영리재단의 56%를 차지할 정도[23)]

- 공익재단이 증가하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도 창출되어 일거 양득

---

22) Foundation Center (2009. 7.). Highlights of Foundation Yearbook. <http://foundationcenter.org/gainknowledge/research/pdf/fy2009_highlights.pdf>

23) Foundation Center (2009. 1.). Key Facts on Family Foundations. <http://foundationcenter.org/gainknowledge/research/pdf/keyfacts_fam_2009.pdf>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

- 2008년 10월 조사에서 19~29세 청년층 317명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6.6%에 불과[24]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광고 및 취업 홍보 활동을 강화

- 연예인 등 사회 유명인사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출연하는 프로보노(Pro Bono)[25] 활동을 전개

- 사회적 기업은 대학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 사이트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의 상근 직원 및 대학생 인턴 채용을 지원
  · 사회적 기업의 구인 현황, 근로조건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以上>

[24] 총 1,509명 대상으로 조사(사회적기업연구원 (2008. 11.). "사회적 기업 인지도 조사".)

[25]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를 뜻하는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단어로, 시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칭

주간 금융지표

금리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및 한은의 RP 매각용 국고채 단순매입 소식으로 하락

	12.7	12.8	12.9	12.10	12.11
회사채(AA-)	5.35	5.30	5.27	5.36	5.33
회사채(BBB-)	11.48	11.43	11.39	11.47	11.43
국고채(3년물)	4.24	4.20	4.17	4.26	4.22
콜금리	2.00	2.01	2.04	2.02	2.01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유로화 대비 강세, 엔화 대비 약세

	12.7	12.8	12.9	12.10	12.11
원/달러	1153.3	1155.1	1161.6	1165.5	1164.0
엔/달러	89.53	88.43	87.87	88.19	89.06
달러/유로	1.4820	1.4699	1.4727	1.4735	1.4623
원/100엔	1288.17	1306.23	1321.95	1321.58	1306.98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美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및 외국인 순매수로 상승

구 분		12.7	12.8	12.9	12.10	12.11
거래소	KOSPI(p)	1632.65	1627.78	1634.17	1652.73	1656.90
	거래량(만주)	26,570	35,428	35,341	46,886	43,768
	시가총액(조원)	859	857	860	870	872
	외국인순매수(억원)	2,647	1,644	-877	2,825	1,231
코스닥지수(p)		487.04	485.94	486.78	489.45	495.21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12. 14 ~ 12. 18)

12. 14. (월) ㆍ국내 보도자료: 2009년 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관세청) ㆍ해외 보도자료: 유로, 10월 산업생산 (EU 통계청) 유로, 3/4분기 고용 (EU 통계청)
12. 15. (화) ㆍ국내 보도자료: 2009년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산업생산 (연준) 미국, 11월 설비가동률 (연준)
12. 16. (수) ㆍ국내 보도자료: 2009년 3/4분기 자금순환 (잠정) (한국은행) 2009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청)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노동부) 미국, 11월 주택착공 (상무부) 미국, 3/4분기 경상수지 (상무부) 유로, 11월 소비자물가 (확정치) (EU 통계청)
12. 17. (목)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경기선행지수 (컨퍼런스보드)
12. 18. (금) ㆍ국내 보도자료: 2009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 대출 동향 (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유로, 10월 경상수지 (EU 통계청) 유로, 10월 무역수지 (EU 통계청)

주간 해외 경제일지

(12. 7 ~ 12. 11)

미 주

12. 7. (월) ・미국: 10월 도매재고 전월대비 0.3% 증가, 상무부
12. 8. (화) ・미국: 4/4분기 CEO 경제전망지수 전기대비 26.6p 상승한 71.5, Business Roundtable
12. 9. (수) ・미국: 10월 무역수지 적자 전월대비 7.6% 감소한 329억 달러, 상무부
12. 10. (목) ・미국: 11월 재정수지 적자 전년동월대비 49억 달러 축소된 1,203억 달러, 재무부
12. 11. (금) ・미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대비 6p 상승한 73.4, Reuters/미시간대학

유 럽

12. 7. (월) ・유로지역: 12월 투자자신뢰지수 전월대비 1.5p 상승한 -5.5, Sentix 리서치
12. 8. (화) ・독일: 2009년, 2010년 GDP 성장률 각각 -4.9%, 1.6%로 전망, 독일 중앙은행
12. 9. (수) ・독일: 2009년, 2010년 물가상승률 각각 0.3%, 0.9%로 전망, 독일 중앙은행
12. 10. (목) ・EU27: 2009년 3/4분기 경상수지 적자 333억 유로, Eurostat
12. 11. (금) ・EU27: 2009년 3/4분기 서비스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기대비 59억 유로 감소한 142억 유로, Eurostat

일 본

12. 7. (월) ・일본: 3/4분기 기업설비투자 전년동기대비 24.8% 감소한 9조999억엔, 재무성
12. 8. (화) ・일본: 10월 민간 기계수주(선박,전력제외) 전월대비 4.5% 감소한 7,045억엔, 내각부
12. 9. (수) ・일본: 10월 경상수지 흑자 전년동월대비 42.7% 증가한 1조3,976억엔, 재무성
12. 10. (목) ・일본: 10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2.2p 상승한 89.7, 내각부
12. 11. (금) ・일본: 11월 국내기업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한 102.2, BOJ

동 남 아

12.7(월) ・베트남: 국제사회, 베트남에 80.5억弗 공적개발원조(ODA) 제공하기로 결정, 탕니엔
12.8(화) ・태국: 소비자 신뢰지수(CCI) 10월 68에서 11월에는 69.1로 소폭 상승, UTCC
12. 9. (수) ・인도네시아: 2010년 자동차 판매량 올해보다 15% 증가한 55만 대로 전망,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2. 10. (목) ・베트남: 2009년 1~10월 대미(對美) 수출 전년동기대비 7.27% 감소한 92억 9,000만 달러 공업상업부
12. 11. (금) ・태국: 2010년 수출증가와 투자확대로 3.3~5.3% 경제성장률 기록 전망, BOT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4	4.6	43.3	6.1	3.6	3.7	9.5	4.6	6.1	4.7	0.06	0.04	895.9
2005	4.0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2	43.8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8.11	-3.4	38.5	7.8	4.5	3.1	-6.2	14.0	11.4	8.56	0.03	0.02	1,076.1
12			5.6	4.1	3.3		13.1	10.4	8.35	0.04	0.03	1,124.5
2009. 1			4.7	3.7	3.6		12.0	9.2	7.34	0.04	0.03	1,162.1
2	-4.2	41.5	4.4	4.1	3.9	-2.5	11.4	8.8	7.07	0.04	0.03	1,063.0
3			3.5	3.9	4.0		11.1	8.4	6.14	0.05	0.02	1,206.3
4			1.5	3.6	3.8		10.6	7.7	5.68	0.03	0.02	1,369.4
5	-2.2	48.9	-1.3	2.7	3.8	-2.0	9.9	7.3	5.16	0.04	0.03	1,395.9
6			-3.1	2.0	3.9		9.6	7.0	5.21	0.02	0.01	1,390.1
7			-3.8	1.6	3.7		9.7	7.7	5.46	0.02	0.01	1,557.3
8	0.9	52.6	-3.0	2.2	3.7	-1.4	10.0	8.0	5.74	0.02	0.01	1,591.9
9			-2.6	2.2	3.4		10.0	7.7	5.58	0.02	0.01	1,673.1
10			-3.1	2.0	3.2		10.5	7.8	5.60	0.02	0.01	1,580.7
11	..	53.2	-0.4	2.4	..	..	..	..	5.43	..	..	1,555.6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4	95.8	100.3	1.1	-4.8	5.3	6.3	-3.9	80.1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0	7.9	-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2	99.9	4.0	3.4	7.9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1.9	100.6	5.1	0.8	8.5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3.1	99.3	1.0	0.5	2.2	-12.8	-9.0	77.2	3.0	5.1	-3.4	24.8
2008. 10	112.7	99.2	-3.4	-2.0	-0.8	-46.4	-23.7	77.3	-2.3	-17.1	-0.7	36.1
11	111.3	97.3	-4.7	-0.4	3.3	-52.6	-39.3	68.4	-14.5	-34.3	-17.2	29.7
12	110.4	94.6	-4.5	-11.9	-5.5	-42.8	30.7	62.3	-20.0	-47.8	-29.0	36.7
2009. 1	110.7	92.4	-3.3	8.7	10.1	-47.4	-15.0	61.4	-27.0	-39.7	-50.0	12.8
2	111.9	92.0	-6.1	-5.2	-19.2	-26.2	-20.7	66.9	-10.4	-24.3	-19.2	33.8
3	113.0	92.5	-5.2	0.4	-5.2	-23.7	-14.7	69.2	-11.1	-21.4	-26.5	36.1
4	115.0	93.5	-3.9	0.9	-4.2	-24.9	-8.0	71.5	-8.8	-12.6	-24.4	17.3
5	117.4	93.8	1.6	4.6	0.2	-21.3	-18.5	72.9	-9.6	-13.4	-22.5	15.8
6	120.5	95.4	7.5	2.7	-4.8	2.1	17.9	76.6	-1.4	1.8	-11.7	21.6
7	122.2	96.2	1.8	3.3	-5.3	7.3	2.9	78.7	0.8	13.2	20.8	16.9
8	123.4	96.7	1.9	7.1	-2.2	-15.7	-29.5	77.7	1.0	20.9	-2.6	12.1
9	124.4	96.9	6.6	8.8	-2.0	31.9	58.4	80.3	11.4	23.4	34.9	30.2
10	125.7	96.9	9.8	12.0	5.6	3.0	27.2	77.3	0.3	36.3	-14.3	-5.9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4	253,845	31.0	224,463	25.5	42,849	25.2	129,525	30.4	49,763	41.7	37,830	52.0	-4.1
2005	284,419	12.0	261,238	16.4	41,343	-3.5	146,914	13.4	61,915	24.4	43,659	15.4	-7.4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9,240	11.0	-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	-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8. 11	28,842	-19.5	28.854	-15.0	3,498	-14.3	13,390	-26.5	5,296	-33.3	4,217	-20.9	-13.7
12	27,118	-17.9	26,576	-21.6	3,491	-9.4	12,418	-26.5	4,715	-35.4	3,269	-34.3	-7.9
2009. 1	21,131	-34.5	24,920	-31.4	2,627	-28.1	10,443	-36.7	4,464	-38.6	3,058	-42.2	4.3
2	25,397	-18.5	22,575	-30.8	2,741	-18.4	12,755	-20.2	5,560	-13.6	3,165	-26.3	7.6
3	27,884	-22.5	23,890	-35.6	2,933	-28.2	14,046	-24.5	6,474	-22.4	3,956	-28.0	4.7
4	30,325	-19.9	24,789	-35.2	3,270	-22.8	14,942	-24.5	6,983	-19.2	4,333	-19.1	8.4
5	27,955	-29.0	23,327	-39.7	2,941	-24.0	14,790	-26.0	6,635	-25.6	3,835	-29.5	13.7
6	32,558	-12.6	25,584	-32.4	3,272	-22.4	16,123	-19.1	7,311	-16.1	4,295	-2.2	14.2
7	31,983	-21.9	27,643	-35.6	3,285	-20.8	17,270	-20.9	7,801	-13.0	3,606	-31.0	9.2
8	28,962	-20.9	27,389	-32.2	3,143	-11.4	16,224	-15.0	7,658	-10.3	3,493	-28.4	14.2
9	34,507	-7.8	29,795	-24.6	3,387	-11.7	18,153	-1.9	8,363	3.4	3,937	-24.1	12.7
10	33,957	-8.5	30,326	-16.0	3,196	-27.9	18.060	0.2	8,177	9.5	4,649	-12.7	18.3
11	34,270	18.8	30,223	4.7	..	..	..	..	..	..	..	..	..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6,599	199,066	1,043.8	1,012.07	1,723	1,167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6,406	5,994	-16,734	5,107	-50,933	-10,595	-15,368	201,223	1,257.5	1,393.89	3,811	-326
2008. 11	1,907	845	-130	720	-12,141	-214	-3,140	200,506	1,482.7	1,553.79	3,779	-301
12	861	1,496	-1,517	576	-4,829	-195	-1,012	201,223	1,257.5	1,393.89		
2009. 1	-1,636	-1,737	-709	564	5,139	-55	5,679	201,741	1,368.5	1,520.98		
2	3,564	3,107	-529	485	-2,977	-546	161	201,535	1,516.4	1,541.14	3,652	-194
3	6,649	6,979	-646	-216	-2,711	-594	-2,308	206,340	1,377.1	1,414.80		
4	4,247	6,132	-1,109	-856	2,161	80	7,133	212,478	1,348.0	1,382.92		
5	3,496	4,882	-1,467	358	7,023	-260	4,264	226,766	1,272.9	1,314.10	3,786	-643
6	5,431	6,612	-1,445	678	-291	219	5,344	231,735	1,284.7	1,336.28		
7	4,359	6,126	-1,894	482	2,385	-1,139	7,940	237,510	1,240.5	1,299.16		
8	1,912	3,332	-1,791	587	5,461	-111	4,064	245,459	1,244.9	1,332.80	3,975	299
9	4,034	5,278	-1,630	548	7,205	-235	7,911	254,247	1,188.7	1,318.80		
10	4,945	5,722	-1,127	541	1,543	-282	6,13	264,187	1,200.6	1,312.63		
11	..	..	..	..	..	..	..	270,892	1,167.4	1,348.27	..	..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4	3.6	2.5	2.7	5.5	8,075	14,771	-6,250	2.25	10,783.0
2005	2.9	3.3	3.4	5.1	8,946	16,818	-7,290	4.25	10,717.5
2006	2.8	2.2	3.2	4.6	10,231	18,614	-7,881	5.25	12,463.2
2007	2.0	1.7	2.9	4.6	11,485	19,679	-7,312	4.25	13,264.8
2008	1.1	-1.7	3.8	5.8	12,914	21,122	-6,733	0.25	8,776.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1]	소비자물가[2]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3]	주가(기말)[4]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4	2.7	5.6	0.0	4.7	6,117	4,922	1,019	0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195	0	16,111
2006	2.4	4.6	0.3	4.1	7,525	6,734	8,71	0.25	17,226
2007	2.1	2.9	0.0	3.9	8,393	7,314	7,90	0.50	15,308
2008	-0.6	-3.2	1.4	4.0	8,105	7,889	1,080	0.10	8,860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overnight call, 4) Nikkei 225

〔유로지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1	2.3	2.1	9.0	11,197	10,553	580	2.00	2,951.2
2005	1.7	4.1	2.2	9.0	12,091	12,041	138	2.25	3,578.9
2006	2.9	5.1	2.2	8.3	13,521	13,715	0	3.50	4,119.9
2007	2.6	2.8	2.1	7.5	15,059	14,900	306	4.00	4,399.7
2008	0.8	1.7	3.3	7.6	15,617	15,929	-686	2.5	2,447.6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1.2	4.2	1.7	10.6	7,261	5,714	1,029	1.98	4,256.1
2005	0.8	3.0	1.6	11.7	7,835	6,259	1,147	2.32	5,408.3
2006	3.0	5.3	1.6	10.8	8,941	7,322	1,509	3.48	6,596.9
2007	2.5	5.8	2.3	9.0	9,707	7,717	1,913	3.66	8,067.3
2008	1.3	0.6	2.6	7.8	9,902	8,135	1,649	0.86	4,810.2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4	2.8	0.9	1.3	4.8	1,909	2,518	-252	4.75	4,814.3
2005	2.1	-1.5	2.0	4.8	2,116	2,801	-327	4.50	5,618.8
2006	2.8	0.6	2.3	5.4	2,436	3,199	-450	5.00	6,220.8
2007	3.0	0.5	2.3	5.4	2,208	3,106	-403	5.50	6,456.9
2008	0.7	-2.8	3.6	5.6	2,510	3,439	-245	2.00	4,392.7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5	2.1	2.1	9.3	3,385	3,441	95	2.04	3,821.2
2005	1.9	0.2	1.7	9.3	3,554	3,790	-111	2.36	4,715.2
2006	2.4	1.0	1.7	9.2	3,884	4,177	-99	3.43	5,541.8
2007	2.1	1.5	1.5	8.4	4,031	4,431	-198	3.76	5,614.1
2008	0.7	-2.3	2.8	7.8	4,120	4,654	-391	1.66	3,218.0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320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019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1,775	6.12	2,675.47
2007	13.0	18.5	4.8	4.0	12,180	9,558	2,627	7.47	5,261.56
2008	9.0	12.9	5.9	4.2	14,285	11,331	2,955	5.31	182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6.2	9.3	1.6	4.4	1,824	1,688	136	1.75	6,139.69
2005	4.2	3.8	2.3	4.1	1,984	1,826	158	2.25	6,548.34
2006	4.8	4.7	0.6	3.9	2,240	2,027	213	2.75	7,823.70
2007	5.7	7.8	1.8	3.9	2,467	2,193	274	3.38	8,506.28
2008	0.1	-2.0	3.5	4.1	2,557	2,408	148	2.00	4591.2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